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7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9월 22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F지단 / 디자인 인쇄소 북형소, 더스포트즈 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호텔앤리조트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9.22 / 제7호

MATCH PREVIEW

감독을 교체한 두 팀의 맞대결,
도약을 위해 물러서지 않을 인천

BLUEMAN INTERVIEW

‘인천 거주 11년 차’ 김도혁
“인천이 팬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ROOKIE INTERVIEW

‘인천의 멀티 플레이어’ 김세훈,
해외 진출과 국가대표 꿈 이루고 싶다



INCHEON UNITED 2024 SQUAD

최영근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1 백민규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10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18R	06월 19일(수) 19:00	0	인천 : 김천	0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3일(일) 18:00	1	인천 : 포항	3	인천축구전용
20R	06월 26일(수) 19:30	1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21R	06월 30일(일) 19:0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5일(금) 19:30	1	인천 : 김천	1	인천축구전용
23R	07월 09일(화) 19:3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24R	07월 14일(토) 19:00	0	광주 : 인천	2	광주축구전용
25R	07월 17일(수) 19:00	1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축구
26R	07월 21일(일) 19:00	1	인천 : 수원FC	4	인천축구전용
27R	07월 27일(토) 19:30	0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10일(토) 19:30	0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29R	08월 17일(토) 19:30	2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30R	08월 24일(토) 19:30	0	인천 : 전북	1	인천축구전용
31R	08월 31일(토) 19:30	1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32R	09월 1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0	김천종합
33R	09월 22일(일) 19: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4R	09월 27일(금) 19: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35R	10월 06일(일) 15: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ULSAN PREVIEW

감독을 교체한 두 팀의 맞대결, 도약을 위해 물러서지 않을 인천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8월에 이어 9월에도 인천은 단 한 번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 9월의 홈 경기 상대는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HD이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은 상위권을 달리던 도중 시즌 중반에 큰 변화에 직면했다. 팀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김판곤 감독이 새롭게 울산의 지휘봉을 잡았다. 김판곤 감독이 부임하기 전 울산은 한때 6경기에서 1승에 그칠 정도로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8월부터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며 우승 경쟁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울산은 여름 이적시장에도 변화가 많았다. 주전 풀백인 설영우가 FK츠르베나즈베즈다에 입단하면서 유럽에 진출했고, 외국인 선수인 마틴아담과 켈빈도 울산과 결별했다. 대신 원두재와 김민준이 전역하여 복귀했고, 오랫동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베테랑 미드필더 정우영도 영입했다. 비어 있는 외국인 쿼터에는 강원에서 뛰던 야고와 조지아 출신 2선 자원의 아라비제가 합류했다.

김판곤 감독이 부임한 후 울산은 4-4-2, 4-5-1 등의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뎁스가 두터운 환경인만큼 경기마다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데, 이적생인 야고와 아라비제는 빠르게 득점을 터뜨리면서 적응력을 끌어올렸다. 경기 결과는 괜찮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울산도 약점을 드러냈다. 노장 선수가 많아 시즌 중반부터는 지친 모습이 엿보이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과 별개로 결정력의 기복이 있었다. 포항에게 5득점을 기록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평균적인 흐름은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인천 역시 울산과 마찬가지로 8월을 앞두고 감독을 교체한 팀이다. 인천은 최영근 감독 부임 이후 4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뒀다. 성적 자체는 무난했지만, 순위 경쟁자인 전북현대모터스, 대전하나시티즌에게 패배한 점이 치명적이었다. 다행히 대구FC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반동의 계기를 마련한 인천은 힘든 9월 일정을 이겨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감독 교체 후 한달간 인천은 전과 완전히 다른 포메이션, 전술 성향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4-2-3-1과 4-4-2를 오가고 있는 인천은 빌드업 시 우측 풀백인 정동운, 김동민이 센터백을 돕고 좌측 풀백 최우진이 적극적으로 전진하여 쓰리백과 포백을 혼용하기도 한다. 정우영과 전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인상적인 장면도 늘어났지만, 문제는 결정력이었다.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다행히 무고사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매섭고, 대구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에 내용과 결정력을 모두 챙기면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인천은 울산 상대로 통산 15승 20무 30패(리그 14승 19무 25패, 리그컵 1승 1무 3패, 코리아컵 2패)를 기록했다. 열세에 놓인 인천이지만, 작년에는 2승 1무 1패로 전적에서 우위를 점한 적도 있다. 올해는 리그, 코리아컵 합산 2무 1패를 거뒀는데, 코리아컵에서 패배한 경기도 비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후반전에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최근의 흐름은 괜찮은 편이다. 시즌 막바지가 다가오면서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이 최후에 웃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최고의 경기력을 펼쳐야 한다. 울산은 난적이지만, 인천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 거주 11년 차 김도혁 인천이 팬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인천유나이티드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

남해에서 온 소년은 10년 뒤 인천을 대표하는 스타이자 전설이 되어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인천의 거점이 되어온 인천항처럼, 긴 시간 인천의 주축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김도혁이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단은 인천과 인천유나이티드에 뜨거운 애정을 품고 있는 김도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사진 = 오석근 작가(punchandjudy@naver.com)





인천이라는 도시와 인천유나이티드라는 팀의 매력은 무엇인가?

인천 시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외국 커피부터 모든 수입품은 동인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인천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전체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인천이라는 도시에 자부심이 더 생겼.

나처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산다. 그러나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여러 사람이 인천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인천에 어우러져 살고, 인천유나이티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이 팀을 더 빛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팬들도 인천 축구팀과 인천시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응원하는 것 같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과 팬들의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군 복무 기간까지 합하면 인천에 온 지 11년 쯤이다. 처음 인천에 왔을 때의 인상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솔직히 처음에 무서운 소문을 들었다. 인천이 거칠다는 이미지가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친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송도가 있어서 인천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다. 인천 주민으로서 인천은 송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인천에서 특히 자주 가거나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동인천을 추천한다.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분위기도 좋다. 옛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한 번 방문하기를 권한다. 내가 사는 송도도 추천하고 싶다. 친구들이 여기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

어렸을 때 자연에서 자라다 보니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나 답답한 공간에 있을 때 속이 팍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할 겸 혼자서 가끔 을왕리 해수욕장 쪽으로 드라이브 가기도 한다. 인천이 공향이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편하다. 집과 공향이 가까워서 어디든지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시간만 있다면 갈 수가 있어서 아주 좋다.

인천항에 관한 경험은 있는지?

인천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이야기는 멀리서 들었지만, 실제로는 처음 오본다.

인천 화수부두에서 9월 매거진 표지 화보 촬영을 했다. 촬영 소감이 궁금하다.

유니폼 모델 촬영 외에 이러한 콘셉트 화보 사진은 처음 찍어본다. 처음에는 왜 나를 찍어준다고 하셨는지 의문이 갔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진 촬영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배에서 찍은 사진이 좋아서 잘 찍은 것 같다. 장소도 멋있고, 풍경도 좋아서 멋진 사진이 나왔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더 좋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다. 다른 선수들도 인천의 또 다른 명소에 가서 사진 찍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앞으로 찍을 다른 선수들의 화보가 많이 기대된다.

지난달에는 무고사가 인천공항에서 매거진 표지 모델 촬영을 했다. 무고사의 화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무고사 몬테네그로 대표팀 소집 기념으로 촬영한 줄 알았다. 무고사가 A매치 가는 길에 공항 가서 찍었구나 했다. 알고 봤더니 홈경기 매

거진 표지 사진이었다. 매거진 표지 모델로 나와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호에 나를 찍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인생 사진 건진 것 같다.

김도혁 선수를 이어서 다음 달 매거진 표지 모델로 누구를 추천하는가?

이번 9월 홈경기 울산HD전 첫 골 넣은 선수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약 가능하다면 최영근 감독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동인천가서서 인천상륙작전 콘셉트로 촬영하시면 굉장히 멋있는 사진 나올 것 같다. 장군 같은 느낌으로 찍으면 재미있는 사진 될 것 같다.

선수들끼리 식당이나 카페 말고도 인천의 명소도 자주 방문하는가?

선수들이 송도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송도 캠핑장에 자주 간다. (이)명주 형 유튜브에 선수들끼리 캠핑 간 영상이 있다. 그 영상 나온대로 선수들이 그렇게 야영장 가서 논다. 최근에도 외국인 선수들, (이)범수 형이 가족들까지 함께 캠핑 갔다 왔다. 예전에는 그 캠핑장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못 갔다. 요새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주 가서 선수들끼리 시간 보내곤 한다.

인천에 입단한 지 10년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천 구단의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었는가?

전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2014년에 인천에 입단했는데, 4~5년 차 때까지는 선수들이 직접 세탁을 했다. 운동 끝나면 빨래할 것 챙겨서 집에서 빨아오고 그랬다.

신인 선수들이 공이나 중요한 장비 관리도 도맡았다. 공 당번이 보통 3명인데 A팀에 신인이 나 하나여서 혼자 공 당번 하고는 했다. 운동 전에 공 바람 체크도 우리가 했다. 속속도 열악했다. 장판이나 커튼이 오래되어서 얼룩이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다. 난방도 기름보일러라 2주에 한 번씩 차가 와서 기름 채웠다.



지금은 선수들이 크게 행길 것이 없다. 장비 담당 직원분이 계셔서 덕분에 편하게 운동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도 생겼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구단 직원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 덕분에 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더 좋아져야 한다.

인천과 함께 보낸 1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매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쉽게 흘러간 적이 없었다. 매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를 뽑자면 작년 AFC 챔피언스리그 요코하마 원정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많이 얻었다.

인천 구단 통산 최다 출전과 도움의 주인공이다. 이 기록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기록에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다. 내가 이룬 것을 무너뜨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부심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어깨가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열심히 해서 이룬 기록이지만,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기록을 더 세우고, 늘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인천에 기억되고 싶다.

등번호 7번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인천의 7번이 김도혁을 상징하는 번호로 자리 잡았다. 등번호에 특별한 애착이나 의미가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포지션이 미드필더였다. 미드필더가 주로 7번을 달아서 어린 시절부터 7번을 많이 달았다. 숫자 7이 행운의 숫자라는 의미도 있고,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이기도 해서 7번을 좋아했다. 프로에서는 등번호를 팀에서 지정해주는 줄 알았다. 처음 팀에 왔을 때 등번호를 고르라고 하셔서 첫해에는 21번을 달았다. 2년 차때 7번이 비어 있어서 7번을 선택했다. 코치님들이 흔쾌히 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7번을 달기 시작했다.



7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등번호를 최대한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내 등번호를 보고 유니폼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다. 비싼 돈 들여서 내 유니폼을 사주셨는데, 내가 번호를 바꾸면 그분들께 실려가 된다고 생각한다. 2년 차부터 계속 7번을 달고 있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7번을 건드리지 않는다.

29라운드 대구FC 원정 경기에서 팀 승리를 결정짓는 오버헤드킥 득점을 기록했다.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다.

축하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가 했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겠다는 각오가 컸다. 골 영상을 자주 보면서 슈팅 타이밍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버헤드킥이 나왔다. 나도 신기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이번에 실감했다.

대구전 오버헤드킥 득점 당시의 생생한 소감이 궁금하다.

(김)보섭이가 나를 보고 크로스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 자기 말로는 나한테 주는 크로스였다고 하긴 한다. 어쨌든 보섭이가 크로스를 올렸고, 수비수가 나가서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수비수가 처리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이 나한테 왔다. 솔직히 크로스가 올 때 가슴으로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놀라면서 공을 받았다. 공이 조금 뜬 것을 보고 ‘세게 차지 말고 정확하게 차면 골대까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슈팅을 시도했다. 보기 전까지는 골대로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원정석에서 찍은 영상 보니까 팬들도 긴가민가하셨던 것 같았다.

오버헤드킥처럼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평소에도 연습하는가?

내가 족구를 좀 한다. 어렸을 때부터 족구에서 공격할 때 쓰는 킥 같은 것을 잘했었다. 그래서 경기에서도 발리슛으로 골을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은커녕 경기에서 시도라도 해볼 줄은 나도 몰랐다.

최우진의 국가대표 소집기를 담은 <피치 밖에서>에서 최우진 선수가 대구전에서 김도혁 선수에게 미안한 장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최)우진이가 대구 황재원 선수와의 경합 장면에서 플레이를 끝까지 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했었다. <피치 밖에서> 영상에서 우진이가 이야기했듯이 우진이가 큰소리로 ‘끝까지 했다’라고 말하더라. 나도 스스로를 더 컨트롤하면서 말했어야 했다. 우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했고, 순간적으로 감정도 올라왔을 것이다. 경기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평소에도 우진이가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우진이가 와서 사과했다. 경기 끝나고 서로 농담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편집된 것 같다.

작년 산동 원정, 올해 전북전, 이번 대구 원정 등 팀 기세를 살리는 득점을 해오고 있다. 스스로 득점 감각에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득점 감각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고사 같은 선수가 득점 감각이 뛰어나지, 나는 아니다. 프로에 와서 간간이 득점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 골에 비하면 멋있지는 않았다. 나도 원더골을 넣어보고

싫다는 생각은 있었다. 내 포지션에서 골을 넣을 기회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중거리 슛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연습했다. 작년 산동 원정이나 올해 전북전 특점이 그 고민의 결과 같다. 최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전 보다 조금 더 앞에서 뛰고 있다. 중거리 골 외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골 영상을 챙겨보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 연차가 꽤 쌓였지만, 같이 중원을 이루고 있는 이명주, 신진호보다는 어리다. 지금도 두 선수에게 배우는 것이 있는가?

(신)진호 형, (이)명주 형 모두 장점이 확실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다. (최)우진이나 (박)승호 등 어린 선수들도 베테랑 형님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 반대로 형들도 어린 선수들에게 많이 배운다. 형님들도, 나도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모든 선수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서로에게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김도혁 선수 본인이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는 후배가 있다면?

조언보다는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소통한다. 감독님께서도 '프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르침을 받아 발전한다. 선수들이 팀을 위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있다.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면서 뛰고 있다. 최영근 감독님 부임 후에는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원래 항상 중원과 2선에서 플레이했다. 지금은 1선과 2선을 넘나들고 있다. 내가 앞에 있는 무고사나 체르소보다 체력이 좋아서 두 선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해준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다른 선수들이 압박 타이밍을 잡으면, 내가 뒤에서 압박하는 포지션이었다. 지금은 그 압박 타이밍을 내가 잡고 있다. 내가 앞선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이 최영근 감독님 부임 전후에 생긴 가장 큰 차이다.

대구전이 끝나고 중계 방송사 인터뷰에서 최우진, 백민규 등 어린 선수들을 칭찬했다. 혹시 더 칭찬해주고 싶은 어린 선수들이 있는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린 선수들 모두를 칭찬하고 싶다. 모두 굉장히 열심히 운동한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숨겨진 선수들이 많다. 우리 팀의 어린 선수들이 다른 팀에 비해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팀 사정이 조금 더 좋았다면 어린 선수들이 축구장에 나와서 경기를 뛰었을 것 같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해 형으로서 미안하다.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서 내년에는 좋은 선수들이 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배의 역할 같다.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어린 선수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올 시즌 인천은 잔류 경쟁 중이다. 지금 인천에서 잔류 경쟁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다. 막판 잔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직력이다. 서로 불신하지 않고 서로 믿어야 한다. 팀이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해야 한다. 나를 포함해 선배들은 팀을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팬들이 돌아서면 우리는 끝이다. 팬들은 돌아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계신다. 아직 팬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팬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선수들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가 모이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남은 경기가 전부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다. 남은 정규리그 경기를 향한 각오 부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팀을 만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도 오히려 흔히 이야기하는 '단두대 매치', 비슷한 순위에 있는 팀과 승점 6점짜리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위권 팀과 맞붙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부담스러운 쪽은 오히려 상대 팀이라 그 점에서도 남은 대진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만날 상대들이 지기만 했던 팀들이 아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위는 우리가 낮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 남은 경기 잘해서 최대한 좋은 위치에서 파이널라운드에 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디를 가나 많은 분이 오셔서 응원해 주신다. 팬들의 응원을 보면 항상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 열심히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 순위가 낮아서 죄송하다. 올해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실망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남은 8경기에서 반드시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 인천이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 시즌이 항상 중요하다.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인천을 좋은 위치에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 인천에 있는 동안 팬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팀을 이끌어가겠다.

'이번 촬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ROOKIE INTERVIEW

‘인천의 멀티 플레이어’ 김세훈, 해외 진출과 국가대표 꿈 이루고 싶다

글=지문호 UTD기자(jimh2001102@naver.com)

2023년, 인천 역사상 12번째 유스 프로 직행 선수가 탄생했다. 김세훈이 그 주인공이다. 김세훈은 유스 시절부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대견고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활약했고, 이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 직행에 성공했다. 김세훈은 입단 첫 해에 AFC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뛰어보았고, 올해 코리아컵과 리그 무대에서도 모습을 차츰 비추고 있다. UTD기자가 묵묵히 성장중인 김세훈을 만나보았다.



용인에서 인천으로, 김세훈의 인천행

김세훈은 인천의 U-15인 광성중에서 처음으로 인천 엠블럼을 달았다. 김세훈은 “초등학교때 광성중이랑 승급 경기를 했었다. 그 경기에서 나를 본 후 테스트를 와달라고 인천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테스트를 두 번 정도 보고 인천으로 입단하게 됐다”고 입단 배경을 풀었다. 당시 김세훈은 경기도 용인시의 수지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인천유나이티드 (대략 2016년 전후)의 이미지가 어렸는지 묻자, 김세훈은 “약한 이미지였다”고 답했다. 실제로 인천은 2010년대 중후반 수 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모두 이겨내며 굳건히 K리그 1 무대를 누비고 있다.

광성중 시절에 상상하던 프로 선수 김세훈의 모습을 물어보았다. “우리가 볼보이를 많이 했다. 지금은 관중석에 팬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관중이 많이 없어서 인천 경기가 있으면 W석 1층에서 항상 경기를 관람했었다. 피치도 가깝고 서포터즈들이 바로 옆에 보여서, 내가 여기서 경기를 뛰고 공을 넣고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진짜 프로가 될 줄 몰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프로 2년차’ 김세훈에게 적응도를 묻다

올해 김세훈은 프로 2년차이다. 김세훈은 “작년이란 올해랑 엄청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아직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 들어왔어도 아직 신인의 마음이다. 작년보다는 좀 더 A팀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고 싶었고, 작년에는 그냥 열심히 했다면 올해는 내 것을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답하며 계속 성장을 갈구하는 모습을 말해주었다. 또한 김세훈은 데뷔 해에 공교롭게도 인천의 첫 아시아 무대 여정을 함께 했다. 실제로 김세훈은 중국과 필리핀 원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항상 우리 구단은 강등권에 있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되게 먼 이야기였는데, 내가 올라오는 해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었다. 비록 내가 티켓을 따낸 멤버는 아니었지만, 나가는 멤버들과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었고 해외도 가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답하며 김세훈은 영광의 순간을 기억했다.



‘2024 인천 유치원’의 핵심 김세훈의 <피치 위에서>

김세훈은 작년 리그 35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U-22 카드를 대거 기용하고 승리한 이른바 ‘인천 유치원’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김세훈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데뷔전을 (최)우진이 말고는 출전한 선수가 없었고, 우진이기도 데뷔전만 치르고 경기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코칭스태프에서 어린 선수들한테 형들이 FA컵 (현 코리아컵) 4강전을 주중에 앞두고 있어서, 우리한테 기회가 간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끼리 연습 게임 뛰면서도 합도 많이 맞

췌었고, 우리끼리 한 번 보여주자는 마인드로 으쌔으쌔하는 마음들이 컸었다. (김)동민이형, (김)동현이형, (천)성훈이형, (김)보섭이형 말고는 다들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서 다들 간절하게 뛰었다. 다 같이 마음이 통했던 경기였던 것 같다”고 답하며 데뷔전을 추억했다.

또한 김세훈은 올해 코리아컵 3라운드 김해시청과의 홈경기에서 처음으로 오랜 시간 출전했다. 김세훈은 “그때 선발은 아니었지만 (김)준엽이형이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하면서 내가 바로 교체 투입됐다”고 출전 배경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몸을 못 풀고 들어가서 전반전에는 많이 힘들었다. 경기 템포도 늦게 따라갔다. 힘든 기억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컵 8강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김세훈은 모습을 드러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후 끊임없는 전방 압박과 날카롭고 과감한 슈팅을 계속 이어갔던 김세훈이었다. 김세훈은 “울산전도 그때 ‘인천 유치원’ 느낌으로 기회가 어린 선수들한테 갔었다. 그때 데뷔전 치르는 선수들도 있었고, 울산이라는 상위권에 있는 팀이랑 맞붙었다. 상대가 이름 있는 선수들이고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 해도 많이 잘하시는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는 마인드를 가졌다. 그런데 전반전에 계획대로 안 돼서 실점을 먼저 했다. 그래서 후반에 들어가서 되든 안 되든 슈팅 때리고 내 장점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과감히 때렸던 것 같다”며 경기에서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활용했음을 알려주었다. 김세훈은 이날 경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었다. “(이)가람이랑 (강)도욱이가 경기 전날에 수분 보충하려고 이온음료를 1.5리터를 세 통씩 서로 양손에 잔뜩 긴장한 채로 사들고 왔다. 너무 긴장한 거 아니냐고 놀리면서 서로 긴장을 풀려고 했다. 경기 당일에는 워밍업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왔는데 정적이 너무 심해서 (오)반석이 형도 이렇게 긴장해서 월 보여주겠냐고 한마디 하셨다. 변재섭 코치님도 “월 긴장하냐, 그냥 평소 연습 게임 때 하던 것처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소유하면서 자신 있게 하자”고 말씀하셨다.”



성장, 또 성장하는 인천의 ‘알렉산더 아놀드’

최영근 감독 부임 후 한 달이 지났다. 김세훈은 “지금은 비록 경기를 못 뛰고 있지만, 팀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팀을 응원하되 최대한 빠르게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과 축구를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귀담아듣고, 훈련과 연습 게임 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다”며 항상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최영근 감독이 특별히 맡긴 역할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김세훈은 “최영근 감독님 오시기 전에는 3백을 썼었다. 그때는 윙백을 주로 썼었는데, 감독님 오시고 나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향을 했다. 그래서 미드필더에서 적응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치님들과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밝혔다.

김세훈은 유스 시절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 만능 살림꾼이다.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김세훈은 “공격형 미

드필더랑 사이드백을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으로 고르고 싶다.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아하는 킥이나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제일 잘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인천은 김세훈을 포함해 총 8명의 신인이 있었다. 이들 중 첫인상이 기억나는 선수가 있는지 물었다. “하동선 선수가 제일 강력했다. 동선이를 딱 처음 본 순간 피지컬도 좋아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다른 선수들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 진위 (평택 진위고) 출신 (김)현서랑 우진이는 진위고가 잘했기 때문에 알았고, (박)진홍이는 이제 같은 회사여서 알았다. (임)형진이 형도 이제 맨소렐 주장하면서 한창 유명할 때였고, (박)승호 형도 대학 득점 1위에서 알고 있었다. 동선이 같은 경우는 못 들었고, 동선이가 상남자처럼 생겨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강렬한 이미지이기도 하니까 대학교 쪽에서 소문이 났던 선수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감이어서 놀랐었다”고 밝혔다.

김세훈의 롤모델은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라고 밝혔다. “킥이나 크로스나 어디서든 반대 전환하는 킥이 너무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한다. 최근에는 아놀드가 미드필더도 보더라. 플레이 스타일은 나와 다르지만 아주 좋아하는 선수”라고 말하며 김세훈의 롤모델이 아놀드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세훈은 “바르셀로나를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다.



차기 중원 사령관 김세훈의 목표

김세훈에게 이번 시즌 목표를 물었다. “만약 내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격 포인트를 꼭 한번 해보기”였다. 축구 선수 김세훈으로서의 큰 목표로는 “꼭 해외 진출을 해서 드림팀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번은 꼭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가대표까지 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세훈에게 매거진 인터뷰 소감을 물었다. 김세훈은 “올해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한 것도 아닌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인터뷰로 팬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세훈은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다. 비록 강등권이지만 재밌는 축구로 많은 공을 넣으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팀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런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팬들에게 전하는 말을 끝으로, 9월호 루키 인터뷰를 마쳤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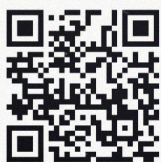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UFC TV

우리가 알지 못했던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피치 위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